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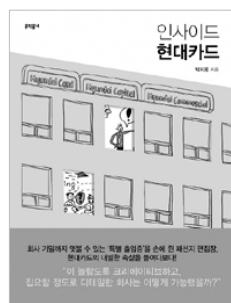
1만명이 시스템적으로 창의력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인사이드 현대카드

박지호 지음

2013년 9월 남성 잡지 편집장이 현대카드에 1주일간 머물며 '그리하여 현대카드론' 기사를 썼다. 알랭 드 보통의 '공황에서 일주일'을 모티브로 한 기사였다. 2주 후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에게서 직접 메일이 왔다. 글에 대한 공감과 함께 한가지 제안을 하는 편지였다. 몇개월, 가능하면 1년 정도 현대카드를 가까이서 관찰한 뒤 현대카드에 관한 책을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특별 출입증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포함한 모든 대외비 자료까지 다 들여다 보십시오. 1년 후 세



상에 공개될 크비 프로젝트 관련 회의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저희를 칭찬하든 비판하든 당신이 느낀대로 솔직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이 제안을 물리칠 사람이 있을까. 아레나 움 박지호 편집장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주일에 한두번 현대카드를 드나들며 책을 써냈다. '인사이드 현대카드'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카드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지만 이게 한 카드회사사의 홍보글이나 분석 책으로만 읽히지 않는 건

나를 포함해, 현대카드가 지난 10여년간 보여준 '현상'들에 주목한 이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 거다.

정태영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부임할 당시 적자만 2조원에 이르는 마이너 카드회사 보여준 흥미롭고도 창의적인 TV 광고는 '부자 되세요'라는 카피나 가족과 동물, 소꿉하는 모습 등의 카드 광고에 익숙한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스티비 윈터, 빌리 조엘, 레이디 가가, 폴 매카트니를 불러들인 슈퍼콘서트와 시티브레이크 페스티벌 역시 많은 이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마돈나와 롤링스톤스의 공연을 기다리는 이들이 바라보는 건 '현대카드 슈퍼콘서트'다.

몇년 사이 잇따라 문을 연 디자인 라이브러리, 트래블 라이브러리, 뮤직 라이브

러리는 또 어떤가.

현대카드를 지금껏 실현된 적 없는 한국형 모더니티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나의 사회현상, 과거와 단절된 새로움과 혁신으로 파악한 저자는 책을 쓰며 두 가지 점에 주목했다. 1만명에 달하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창의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한 호기심과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궁금증이다.

무엇보다 글쓰기가 매력적이다. 저자는 '식민지 시대 미쓰코시 백화점 쇼윈도의 신상품을 감상하며 명동을 산책하던 작가 이상의 설렘'을 느끼고 싶다고 했다. 그 설렘을 바탕으로 저자는 분석이나 논문 대신, 밀착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생생하고 흥미로운 여행기와 관찰기를 만들어냈다.

미국과 남미를 넘나들며 진행된 전라회



현대카드의 브랜드 공연인 '시티브레이크 페스티벌'은 슈퍼 콘서트와 함께 현대카드의 대표 문화프로그램이다. <문학동네 제공>

의와 간부회의까지 참여하고 신입사원과 슈퍼콘서트 제작팀에 대한 인터뷰와 각종 행사, '사육투어'까지 진행할 정도로 입소문이 난 건물 구석구석에 담긴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책 말미에는 정태영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다. 첫 원고를 읽은 소감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애초에 원고를 두고 가타부타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었는데) 다만 걱정 하나는 여전히 저 개인의 비중이(현대카드라는 조직보다) 더 크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문학동네·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본성과 문명... 인류 진화 보고서

제3의 침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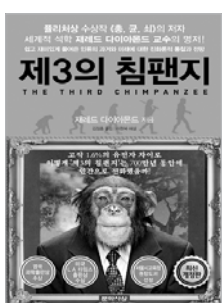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는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분자생물학 연구결과 침팬지와 사람 DNA 차이는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98.4%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만년 전 침팬지와의 공동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인류가 언제부터, 왜, 어떻게 침팬지와 다르게 진화하고 문명을 일구게 됐을까?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제3의 침팬지'는 인간의 본성과 문명의 발달 과정을 명쾌하게 풀어낸 인류진화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한국에 첫 소개된 이후 29쇄를 찍을 정도로 꾸준히 읽힌 고전으로 최근 20여년만에 개정 출간됐다.

저자는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인류가 직면해 있는 생존에 대한 위협(환경파괴, 대량 살육, 악물남용)이 이미 위급수위에 이른 것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알리려는 열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저자는 보도보와 침팬지에 이어 인간을 '제3의 침팬지'로 분류한다. 인간과 침팬지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도약 요인은 언어의 완성에서 비롯됐다. 정교한 언어를 향유함으로써 새로운 사물을 발명하고, 인



생과 예술을 논하며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남녀의 자녀 공동 육아와 배우자 선택, 혼외 정사, 여성의 폐경 등 제1, 2 침팬지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한 인간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생애주기)을 인류 진보와 관련해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인류 진화와 문명 발달사를 돌아보며 인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암울한 미래를 경고한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로 핵무기와 대규모 환경파괴, 대량 학살 등을 꼽았다. '제3의 침팬지'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폭력성이 인류 몰락과 생물 종을 말살시킬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저자는 궁극적으로 인류 미래를 낙관한다. 에필로그에서 "만약 인류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나머지 두 침팬지보다 밝을 것"이라고 매듭짓는다. 저자의 또 다른 명저 '총, 군, 쇠'와 함께 읽길 권한다.

<문학사상·2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옥스브리지 생각의 힘= '이것은 질문입니까?'의 저자 존 판던의 책. 전 세계 1% 최고의 지성에게만 허락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면접 과정을 한 권에 담았다. 영국 900년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교육 방법, 읽는 이를 세계적 지성으로 이끄는 질문, 생각의 입체적 확장을 보여주는 답변을 통해 짜릿한 지적 사고의 전환을 경험하게 만든다. 명문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주입식 교육에 지쳐 새로운 것을 찾는 학생,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책이다. <RHK·1만3500원>

▲리틀 브라더= 코리 닥터로우 장편소설. 6주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였으며, 출간되자마자 각종 상을 휩쓸었던 화제의 소설이자, 발표하는 작품마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작가 코리 닥터로우의 대표작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SNS를 조작해 선거까지 개입하려는 국토안보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



더'를 연상케 하는 국가기관에 맞서는 열일곱 살 소년의 싸움. 지난 9월 파라마운트사와 영화 판권을 계약하고 영화 작업에 들어갔다. <아작·1만4800원>

▲조선의 천재 허균= 조선 500년 역사상 역모사건에 몰려 비운의 생애를 마감한 걸출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허균이다. 세상을 개혁하려다가 세상의 날선 칼날이 그 꿈을 펼치지 못한 채 비운의 생애를 마감한 허균. 그는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모함과 비난을 들어야 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가식 없이 솔직했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사상가로 불화를 빚었다. 천재 작가이자 혁명가 그리고 자유인, 시대에 맞선 허



균을 만난다. <상상출판·1만3000원>

▲보이지 않는 전쟁 @War=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즉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킹과 테러, 그리고 분쟁과 전쟁을 다루는 책. 사이버안보 분야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지난 10년간 미국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안보국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추적했다. 저자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테러리프트, 외국 정부의 은밀한 공격에 대항하는 사이버전쟁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공개조차 꺼리는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정보를 낱알이 밝히고 있다. <양문·1만7800원>

▲여자 친구= 마리 유키코 소설. 1997

년 일본을 발각 뒤집어놓은 강력 범죄가 있었다. 도쿄전력에 근무하던 여성의 사체가 어느 아파트에서 발견된 것이다.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 살던 불법 체류자 네팔인이 곧 강도 살해 용의로 체포됐지만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피해자 여성의 이력과 사생활에 있었다. 바로 이 도쿄전력 살인 사건의 논픽션을 모티브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가져온 만큼 작가의 어떤 작품보다도 사회비판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엘릭시르·1만3800원>

▲검은색= 송재학 시인의 아홉번째 시집. 풍경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활용되는 색깔, 소리, 빛 등의 다양한 감각들은 송재학이라는 통로를 거쳐 시문으로 씌어졌다. 이번에는 '검은색'이라는 가장 깊은 색에 대한 사유로 시집을 채우고 있다. 색채를 다루는 시인의 뛰어난 언어적 감각이 검은색이라는 모호하고 상징적인 색을 만나 역설적으로 다채로운 색을 빚어낸다. 검은 목을 문헌 검은 붓으로 써어진 시들이 시집을 채우고 있다. <문학과 지성사·8000원>

어린이 책

▲어린이 경제 1~2= 일러스트 이우일이 그리고 김상원이 쓴 어린이 경제 시리즈가 나왔다. 1권 생활 경제와 2권 사회 경제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인 누나 이코와 3학년인 남동생 노미, 두 남매에게 틈만 나면 경제 지식을 풀어 놓는 수다스런 부모가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주요 경제 개념과 원리를 알려 준다. <파랑새·각 권 1만원>



▲내 마음이 조각조각= 어린이의 속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한 색깔로 어루만지는 화가 올리비에에 탈레크와 어린이의 입 말처럼 단순하면서도 독창적인 표현이 돋

보이는 작가 샤를로트 문드리크. 두 사람이 함께 풀어낸 '내 마음이 조각조각'은 첫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마음의 크기를 넓혀 가는 남자아이를 그린 사랑스러운 그림 동화다. <시공주니어·7500원>

▲샘 디블의 낙서 이야기= 개구쟁이 초등학생 샘 디블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자유로운 낙서와 함께 풀어낸 코믹 스토리북 4권 환경센터 구출 작전. 재치만점 다양한 낙서와 어울린 사고몽직 낙서쟁이 샘 디블의 이야기는 상상력을 키워준다. 샘 디블 캐릭터에만 색을 입히고 나머지 낙서는 색을 비

워두어, 직접 색을 칠할 수 있는 컬러링북 요소를 더했다. <서울문화사·9800원>

▲천하의 말 안 듣는 개구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그린 동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아이가 자라면서 자아가 확립되고 자기주장이 강해짐에 따라 말대답을 하고 옳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들의 갈등과 각자의 내밀한 속마음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폭풍공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라임·9000원>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상 담 문 의
010-3605-5000

경매투자

▶투자 하실 분!
단독/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돈·빌려주실 분!
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담양 금성면, 송학랜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시세/감정가 - 30억 정도
- 급매 - 17억 2천만원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 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18억이상 재대출 가능)

금호동 7층,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01호, 건 120평, 시면유리, 전망최고
- 과거, 뷔스바(7080) 운영
- 시세/감정가 - 7억 정도
- 급매 - 5억 2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포함)
(1년후 5억이상 재대출 가능)